

01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회의 열어

동국대학교 의료원은 고양시에 있는 '동양인재개발원'에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에 걸친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전략회의는 의료원 산하 기관장과 주요 보직자 36명이 참석하여 2014회계연도 경영성과와 2015회계연도 의료원 경영 기조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진호 의료원장은 교직원들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조직이 상생할 수 있는 win-win 전략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워지는 의료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관별(의료원, 일산, 경주, 분당)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인 위치에서 더욱 발전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02 교직원봉사회 연우회, 의정부시 송산노인복지관 다녀와

교직원봉사회 연우회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에서 운영하는 의정부시 송산노인복지관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봉사활동에는 정형외과 김진영 교수, 침구과 이승덕 교수 등 연우회 임원과 회원 약 25명이 참여하여, 100여 명의 독거 어르신에게 양·한방진료, 물리치료 및 운동요법 등의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특히, 이날 진료는 2013년 11월부터 정기적으로 돌봐 온 어르신들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진료를 하여 어르신에게 더 큰 인기를 끌었다.

진료를 받은 어르신은 “나이가 많아서 안 아픈 곳이 없고 상담을 받고 싶어도 받을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무료로 진료도 해주고 처방도 해줘서 고맙고, 매년 연우회 봉사가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03 더욱 안정화된 365일, 24시간 무정지 의료정보시스템 가동

의료정보팀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술 평가와 사업관리부문 그리고 유지보수 수행부문 등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동부CNI와 손을 잡고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산 장비를 관리한다.

의료정보팀은 동부CNI와 주전산기(HP), EMR/Image/PACS, Storage, 네트워크, 보안(IPS/방화벽), Database, Middleware 등 각종 전산장비들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고, 앞으로도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자 진료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최상의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04 보다 선명한 디지털TV 방송을 위한 설비 구축

동국대학교병원은 디지털 전용 광케이블망과 병원 자체 TV 송출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부터 원내 어느 곳에서나 더욱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방송 구축사업은 셋톱박스의 잦은 고장과 설비 노후화로 TV 화질이 많이 떨어져 환우의 불편이 증가하고, 다국적 해외환자들이 본원을 많이 찾고 있으나 자체위성채널 추가도 불가능하여 디지털 전용 광케이블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시설관리팀은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우 분들이 선명한 고품질의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우의 입장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주인공 24호

의료정보팀

마주희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2014년 7월경 보험심사청구 담당자가 휴직에 들어가면서 의료정보팀 담당자가 바뀌게 됐습니다. 의료정보팀장은 새로운 업무에 적응력이 빠르고 꼼꼼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며 마주희 선생님을 추천하시더군요. 전 ‘주희’란 이름을 듣고 긴 생머리에 믿음직한 여자일 거라고 상상하고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심사청구를 맡게 된 날 의료정보팀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일 뿐 바뀐 여자직원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일을 꼼꼼히 잘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은 지라 부서 직원에게 마주희 선생님과 업무를 같이하게 되었는데 언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왔다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마주희 선생님이 왔습니다.

헉, 제가 상상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주희라는 이름과 꼼꼼하게 일을 잘한다는 평가 때문에 저는 그를 여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일 해보니깐, 들었던 대로 꼼꼼한 일 처리로 보험심사팀원들로부터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 다. 청구마감 날에는 끝까지 남아서 뒤풀이도 같이하는 등 진짜로 이름만큼 예쁜 선생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빚낸 주옥같은 사람 ‘예쁜 마주희’ 선생님을 이번 주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보험심사팀 추 경 란

동계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소감문 당선작

장려상 김 대 희 학생

나는 3일에서 5일 단위의 단기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센터, 축제 스태프로 봉사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은 있지만, 종합병원에서는 처음 봉사를 해보기에 봉사신청에 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다. 의료시설이다 보니 막중한 책임감이나 의학과 관련된 지식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활동을 배워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오전 봉사에 신청했다.

첫날인 12일,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나는 7병동에 배정되었다. 7병동에 찾아가자마자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은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분들께 환의를 나누어 드리는 일이었다. 처음부터 병동을 한 바퀴 돌아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첫날엔 병동 여사님을 따라다니기만 해도 된다고 하셔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여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다. 린넨을 정리하고 약품을 반납하는 일을 도와드리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다.

내가 봉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심부름하러 다니는 일이었다. 동국대병원은 봉사활동을 위해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병동과 외래나 다른 부서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 첫날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한번 들은 위치를 계속 기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코너마다 표지판이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다른 성인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심부름하러 다닐 수 있었다. 비닐 앞치마나 방수포 접기, 메모지 만들기와 같은 소모품을 만드는 활동은 단순노동이라 조금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지만 다 끝내놓고 나면 뿌듯함에 기분이 좋았다. 5일 동안 전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들을 하며 배워가는 점도 많았기에 이번 봉사활동으로 많은 보람을 느꼈다.

Q&A

Q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를 전화로 문의받았습니다. 알려줘도 되나요?

A 환자의 입원정보는 개인정보로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인 입원 여부를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 주는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 리 미

환경정리의 날 일시 : 3월 27일(금) 07:30 | 장소 : 병원 내 · 외부

